

# “개학연기 가시화... 학사일정 검토”

### 김승환 교육감, 확대간부회의서 대책 마련 당부... 학제개편 의견 피력도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연기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환 교육감은 16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가 3차 개학연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교육과정 운영을 비롯해 생활기록부 기재, 시험 등의 평가, 내신 등 학사일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3차 개학연기가 결정되면 우리는 그 다음을 감당해야 한다”면서 “교육과정이 훼손되는 부분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고, 특히 교육 소외계층 자녀들이 접근성이 떨어져서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승환 교

육감은 상황이 이렇게 된 만큼 우리나라 학제개편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싶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이 외국 학교를 가려면 학기 조정하기가 힘들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마찬가지다”면서 “글로벌 스탠다드(국제 규범)에 맞춰 신학기를 3월에 시작하는

우리나라 학제를 조정하는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잘 먹고 잘 자고,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개인 면역력 길러주는 일과 학교의 면역력을 높이는 일에 힘써야 한다”면서 “한 그릇에 담긴 찌개와 반찬 등을 여러 사람이 같이 먹는 우리의 식생활 문화를 개선하는 것부터 실천해보자”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지난 2월 26일과 3월 13일 양일간 임직원과 도내 여성계 정례모임인 전북여성화요간담회 회원을 대상으로 장미꽃 나눔 행사인 '플러워 데이' 운영, 꽃 시주기 운동을 전개했다.

## 화훼농가 돕기 '꽃 선물' 릴레이

###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화훼 농가를 지원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된 화훼시장 활성화 및 꽃 소비 촉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센터 주변(덕진구 들사평로) 상가 등에 꽃을 선물하며 '꽃 선물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센터는 지난 2월 26일과 3월 13일 양일간 임직원과 도내 여성계 정례모임인 전북여성 화요간담회 회원을 대상으로 장미꽃 나눔 행사인 '플러워 데이' 운영,

꽃 시주기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특히 재능기부가 가능한 센터의 상제자 동아리 회원을 중심으로 천 마스크를 제작, 전주시 덕진구 관내 독거노인과 저소득가정 등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천 마스크 500여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운에 센터장은 “지역민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지역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운에 센터장은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이영호 센터장을 추천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대 총동창회, 방역 기부 드론 이용 도서관·생활관 등

전북대학교 총동창회(회장 이용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기부를 펼쳐 훈훈함을 안겨주고 있다. 총동창회는 최근 학생들이 많이 다니거나 이용하는 다중 시설 주변을 방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총동창회는 15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드론을 이용해 도서관과 생활관, 소운동장, 구정문 부근 '알림의 거리' 등을 방역했다고 전했다. 이는 한국항공방재협동조합장인 김현기 동문(원예학과 12학번)의 방재용 드론 제공과 재능기부 등을 통해 이뤄졌다. 김현기 동문은 “코로나19로 불안감을 갖고 있는 모교 후배들과 구성원들을 위해 작게나마 가진 재능을 나누고 싶었다”며 “개강 후 모교 후배들이 보다 안심하고 대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총동창회(회장 이용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5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드론을 이용해 도서관과 생활관, 소운동장, 구정문 부근 '알림의 거리' 등을 방역했다.

## 교육부 가상 창업교육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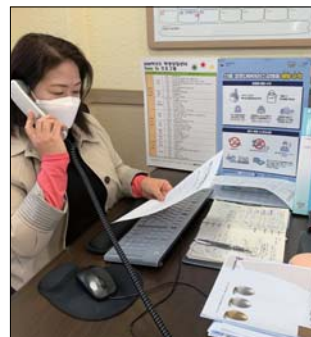
교육부가 오는 17일부터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창업체험교육 플랫폼 YEEP(yeep.kr) 신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YEEP(Youth Entrepreneurship Experience Program)은 지난 2015년부터 운영됐다. 창업가정신을 길러주기 위한 수업 프로그램 242개, 학생 창업동아리 807개 운영을 지원한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으로 시장분석이나 온라인 사업 설명회, 가상 크라우드 펀딩, 가상 마켓 등 다양한 기능이 추가됐다. 학생들은 직·간접적으로 창업과정을 가상 체험할 수 있게 됐다. 시장분석 메뉴는 가상 소비자 대상으로 시장분석을 위한 수요를 조사하거나 창업 이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온라인 사업 설명회 기능으로는 예비 투자자를 대상으로 학생들이 직접 창업 품목과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홍보하는 방법을 체험할 수 있다. /뉴스

## 호원대 학생상담센터, 통합심리지원 확대

### 학생·교직원 대상 올댓 상담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학생상담센터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관리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통합심리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16일부터 학생은 물론 교직원에게 이르기까지 심리상담 지원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호원대 학생상담센터는 크게 3가지 지원 및 관리 운영하게 된다. 우선 코로나19 통합 심리지원으로 확진 경험자와 그 가족, 격리 경험자 등의 심리적인 안정과 학교 적응, 둘째 올댓상담(온라인) 지원으로 센터 방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을 위한

온라인 심리상담 지원 제공, 마지막으로 각종 스트레스로 인한 교직원 심리상담 지원으로 과도한 불안과 스트레스 예방 등이다. 또한 재학생 및 교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비대면 상담으로 상담센터의 문턱을 낮췄으며, 외부 직원 전문상담사와의 연계 및 온라인 상담 진행으로 비밀보장 및 다양한 접근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영 학생상담센터장(심리상담치료학과 교수)은 “사회적 불안의 요소가 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심리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 및 교직원까지 상담을 확대 실시해 쉬운 접근성과 폭넓은 상담지원의 시발점이



호원대학교 학생상담센터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관리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통합심리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도교육청 '에코어드벤처' 잔걸음

### 익산·정읍 등 5개 교육지원청 참여... 2000만원 씩 지원

전북도교육청은 2023년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성공개회를 위해 에코어드벤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에코어드벤처란 자연 친화적인 학교 숲을 활용한 스카우트 과정활동과 캠프를 통해 미니잼버리를 간접 경험함으로써 잼버리 대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스카우트 대원을 증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사업을 희망하는 교육지원청을 신청 받아 익산, 정읍, 김제, 고창, 부안 등 5개 교육지원청이 참여했다. 각 교육지원청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운영계획에 따라 지역자원을 활용한 미니잼버리 체험, 전문가와 함께

학교 숲놀이, 청소년 캠프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예산은 1억 원으로 각 교육지원청에 2천만 원씩 지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스카우트 활동과 캠프를 통해 잼버리대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흥미와 관심도를 향상시킬 것”이라며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에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에코어드벤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해 청소년들에게 잼버리를 활용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